(제45권 26호)

오순절 후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6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흥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 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통일 4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 번 (시편 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신명기 1:29-33**	고지현집사
찬 양 Anthem	"주께 오라"	찬양대
설 교 Sermon	**" 참 좋으신 하나님 "** **(God is so good)**	정재흥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는 비록 약하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90 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통일 9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흥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기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상처받은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혹 우리의 입술로 남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무도 보지않는 시간과 장소에서조차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주님을 잊고 자만하거나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매순간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3,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개역개정 **신 1:31**)
"how the LORD your God carried you, as a father carries his son, all the way you went until you reached this place" (NIV Deuteronomy **1:3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5 (주일)	6/26 (월)	6/27 (화)	6/28 (수)	6/29 (목)	6/30 (금)	7/1 (토)
본문	신30 시119:73-96 사57 마5	신31 시119:97-120 사58 마6	신32 시119:121-144 사59 마7	신33,34 시119:145-176 사60 마8	수1 시120-122 사61 마9	수2 시123-125 사62 마10	수3 시126-128 사63 마1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28수 오후7:30)	룻기 (5) – "하나님의 은혜" (룻2:8-16)
토요 새벽기도회 (7/1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5) – "재림의 소망" (살전3:1-13)

지난 주일(6/18) 말씀

"아버지" (요한복음 14:6-13)

성경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든 시대에는, 가정에서 윤리와 질서가 파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또한 끝까지 순종하셨으며,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때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2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①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모습과, ②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과,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좋은 아버지/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으로 기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자녀는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젖을 빨지만, 커서는 아버지의 젖을 빤다.' 이 말의 뜻은 어머니의 젖은 육신적인 양식이지만, 아버지의 젖은 정신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어머니 상을 심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메/모